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처 현장 간담회 진행



<사진 =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습>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1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바이브컴퍼니(대표 김성언, 이하 바이브) 본사에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해, 바이브, 포티투마루, 제네시스랩, 와이즈넷 등 업계 관계자들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 및 회원사 임직원 등 약 15명이 자리한 가운데 바이브의 AI 기술 시연과 동시에 현장 간담회가 이뤄졌다. 이는 챗 GPT(ChatGPT) 등 초거대 AI의 등장 이후 본격적인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바이브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윤준태 부사장은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언어모델에 대한 히스토리과 현황, 자사 AI 언어모델인 바이브젼(VAIVGeM)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최근 LLM은(Large Language Model, 초거대언어모델)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과 보안 이슈로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존재했다.

바이브는 지난 6월 자체 AI 언어모델인 바이브젼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브 서치



(VAIV Search) ▲바이브 챗봇(VAIV Chatbot) ▲바이브 리포트코파일럿(VAIV ReportCopilot) ▲바이브 뉴스다이제스트(VAIV Newsdigest) 등 솔루션들을 선보인 바 있다. 바이브잼 기반의 솔루션들은 최근 LLM모델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해 공공 영역이나 기업에서 쉽게 도입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바이브 서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AI 검색 서비스로, 기존의 검색 방식이 키워드 검색 방식이었다면 이는 문장 형태의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바이브 서치는 국회도서관을 비롯,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내구축형 솔루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이완규 처장을 중심으로 AI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AI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 또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바이브 김성연 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바이브도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바람직한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